

클레이저스교회 CLAYJARS

1314 N Angelina Dr. Placentia CA 92870

www.clayjars.org

황성만 목사 Rev. Sungman Hwang

November 8, 2026 **제24권 45호**

2026년 교회 표어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요13:34~35, 요일4:11)

Christians who Sharing Love

: Embracing All, Serving All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I am giving you a new command. You must love each 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If you love each other,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요한복음(John) 13:34~35]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rom the beginning you were told that we must love each other.

[요한일서(John 1) 3:11]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is all-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2 Corinthians 4:7)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성령강림절 후 스물네번째 주일 | **November 8, 2026**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합 3:17-18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예수 하나님의 공의 어둔 밤 쉬 되리니 세상 모든 민족이(물이 바다 덮음 같이)
고백의 기도 Prayer of Confession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기도 Prayer		**정해철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김형귀 집사,** 아모스(Amos) 5:18-24 **교독-다함께,** 데살로니가전서(Thessalonians) 4:13-18
복음서봉독 The Gospel		마태복음(Matthew) 25:1-13, **설교자**
오늘의 말씀 Sermon		"나눌 수 없는 기름" The Oil That Cannot Be Shared - **황성만 목사**
봉헌 Offering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광고 Announcement		
결단찬양 Responsive Song	*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 Since Christ My Sol From Sin Set Free
축도 Benediction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Please stand.**

-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 다음주 기도 | 윤치선 집사

| 다음주 본문 | 봉독자 **유은복 권사** 스바냐() 1:7, 12-18
데살로니가전서(Thessalonians) 5:1-11
마태복음(Matthew) 25:1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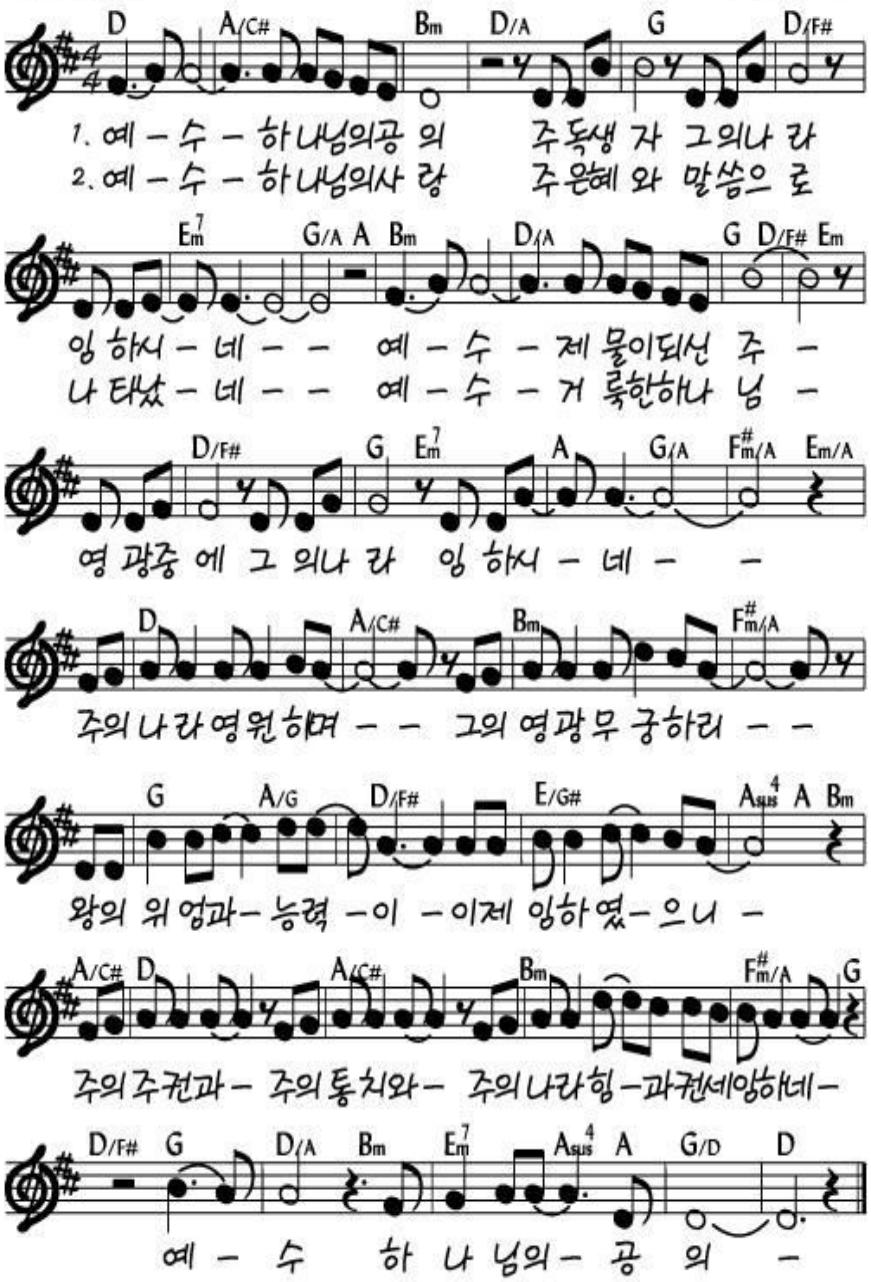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7-18)

예수 하나님의 공의

Geoff Bullock

올네이션스 역



Copyright (C) 1995 Word Music Inc./Maranatha! Praise In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봉사와 충성

어둔 밤 쉬 되리니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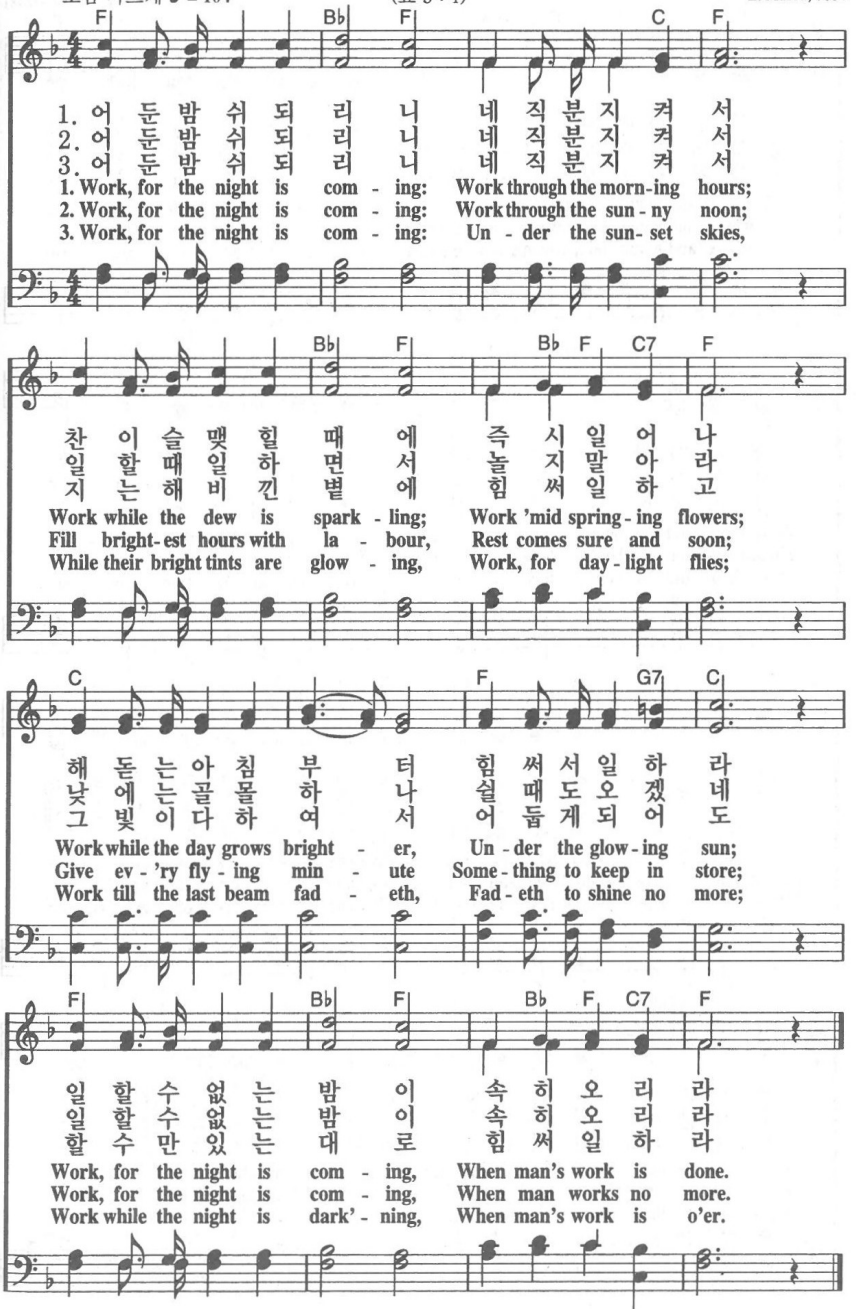
A. L. Coghill, 1854

Work, for the Night is Coming

(요 9 : 4)

WORK SONG: 7.6.7.5.D.
L. Mason, 1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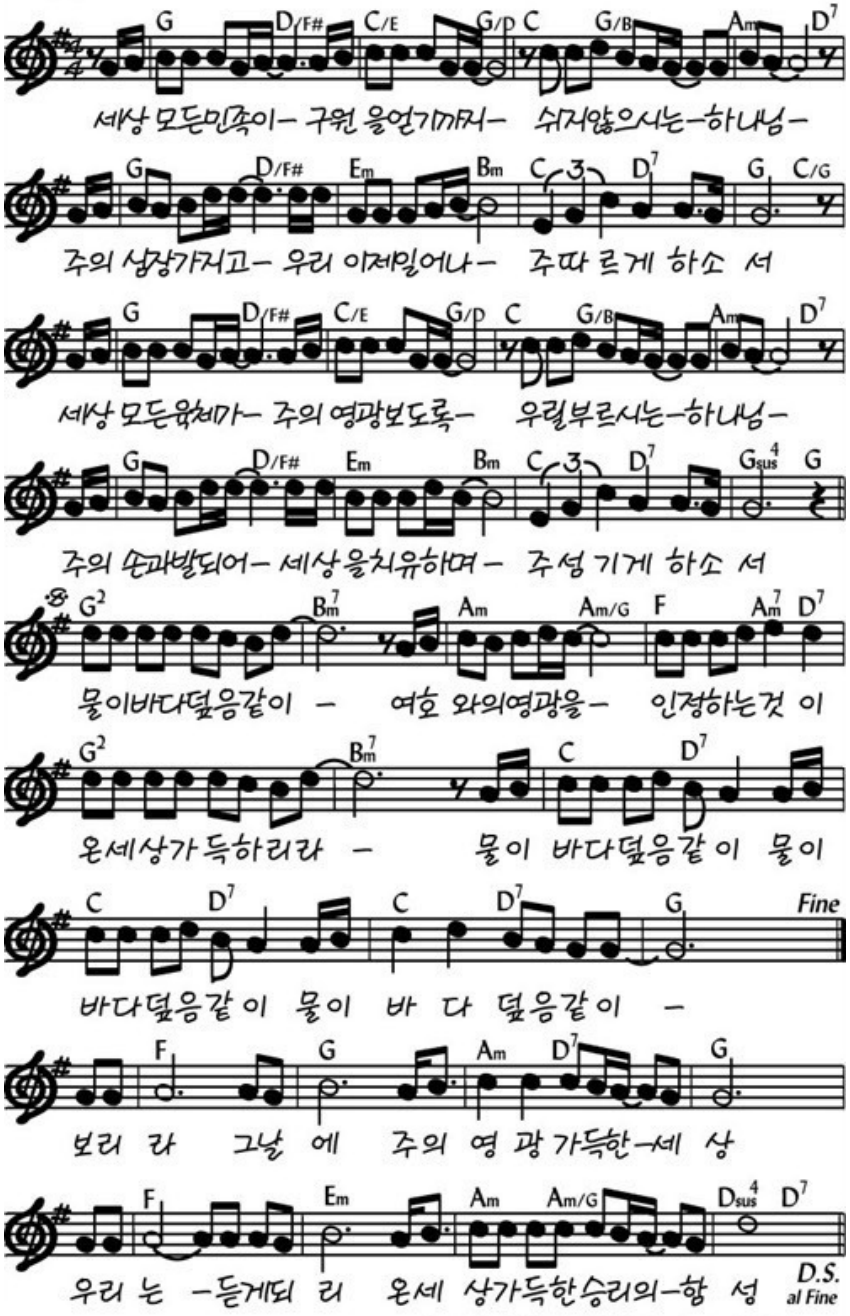
조금 빠르게 ♩ = 104



세상 모든 민족이

(원제:물이 바다 덮음 같이)

고형원



Copyright (C) 고형원 .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begotten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아모스(Amos) 5:18-24, 새번역, ESV]

18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19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20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21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22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23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거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24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18] Woe to you who desire the day of the LORD!
Why would you have the day of the LORD?
It is darkness, and not light,
[19] as if a man fled from a lion,
and a bear met him,
or went into the house and leaned his hand against the wall,
and a serpent bit him.
[20] Is not the day of the LORD darkness, and not light,
and gloom with no brightness in it?
[21] "I hate, I despise your feasts,
and I take no delight in your solemn assemblies.
[22] Even though you offer me your burnt offerings and grain offerings,
I will not accept them;
and the peace offerings of your fattened animals,
I will not look upon them.
[23] Take away from me the noise of your songs;
to the melody of your harps I will not listen.
[24] But let justice roll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n ever-flowing stream.

[데살로니가전서(Thessalonians) 4:13-18, 새번역, ESV]

13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4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15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16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13 But we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brothers, about
those who are asleep, that you may not grieve as others do who
have no hope. 14 For since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even so, through Jesus, God will bring with him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15 For this we declare to you by a word from
the Lord, that we who are alive, who are left until the coming of
the Lord, will not precede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16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cry of command,
with the voice of an archangel, and with the sound of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17 Then we who are
alive, who are left,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will always be with
the Lord. 18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with these words.

[마태복음(Matthew) 25:1-13, 새번역, ESV]

1 "그런데,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2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5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7 그 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8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10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11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12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13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5 "Then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en virgins who took their lamps and went to meet the bridegroom. 2 Five of them were foolish, and five were wise. 3 For when the foolish took their lamps, they took no oil with them, 4 but the wise took flasks of oil with their lamps. 5 As the bridegroom was delayed, they all became drowsy and slept. 6 But at midnight there was a cry, 'Here is the bridegroom! Come out to meet him.' 7 Then all those virgins rose and trimmed their lamps. 8 And the foolish said to the wise, 'Give us some of your oil, for our lamps are going out.' 9 But the wise answered, saying, 'Since there will not be enough for us and for you, go rather to the dealers and buy for yourselves.' 10 And while they were going to buy, the bridegroom came, and those who were ready went in with him to the marriage feast, and the door was shut. 11 Afterward the other virgins came also, saying, 'Lord, lord, open to us.' 12 But he answered, 'Truly, I say to you, I do not know you.' 13 Watch therefore, for you know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이번주 작품]



윌리엄 블레이크,「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

William Blake, The Parable of the Wise and Foolish Virgins

1799-1800 년경, 수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340853

한밤중, 열 처녀가 두 무리로 나뉘어 서 있습니다. 왼쪽의 다섯은 불 켜진 등불을 고요히 들고 있고, 오른쪽의 다섯은 어두운 빛 속에서 허둥대며 무너져 있습니다. 같은 잔치에 초대받고, 같은 등불을 들고, 같은 밤을 기다렸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의 머리 위로 천사가 나팔을 불며 지나갑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하는 한밤중의 외침(마 25:6)과 잠든 이들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살전 4:16)가 한 화면 안에서 함께 울립니다.

블레이크는 누가 더 오래 깨어 있었는지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르심 앞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신랑께 알려진 생명이 그 등불 안에 흐르고 있었는가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 앞에 서면, 그 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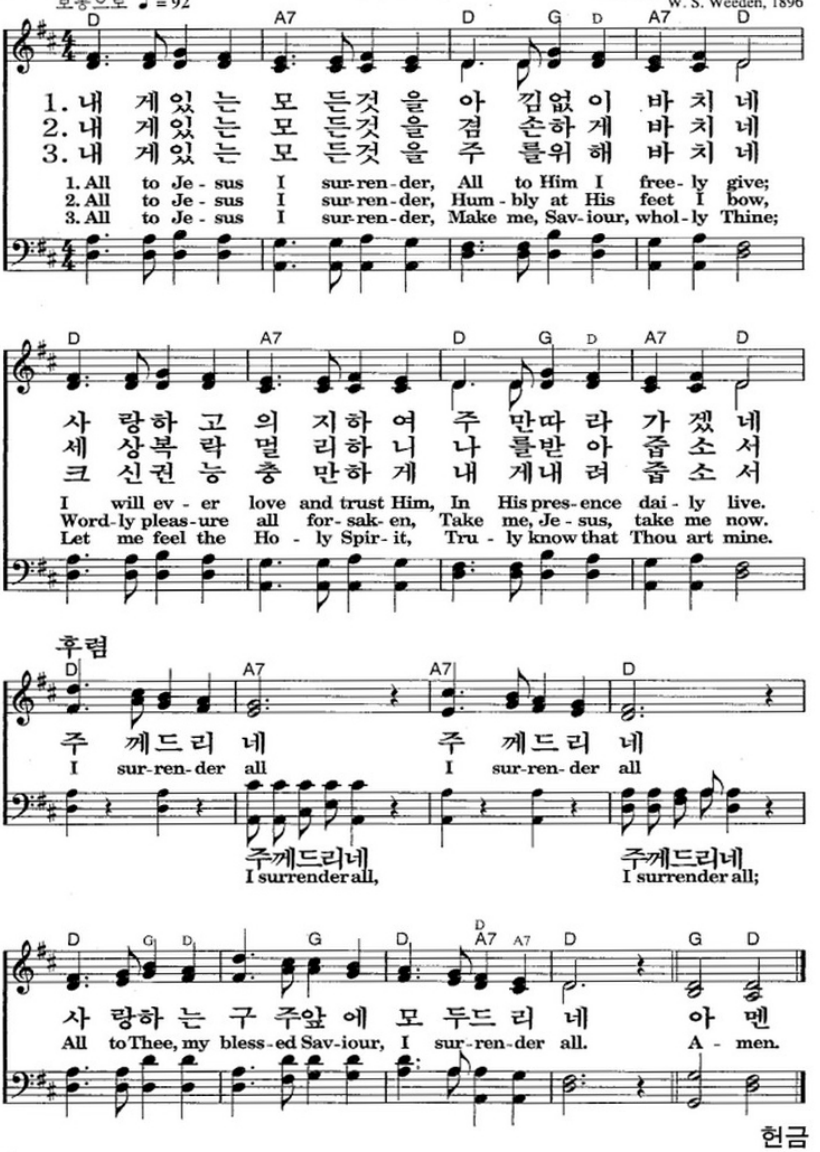
내게 있는 모든 것을 71

All to Jesus I Surrender

(눅 21 : 4)

J. W. Van De Venter, 1896
보통으로 ♩ = 92

SURRENDER: 8.7.8.7.REF.
W. S. Weeden, 1896



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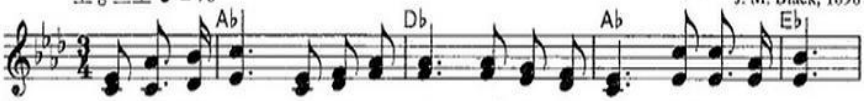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C. F. Butler, 1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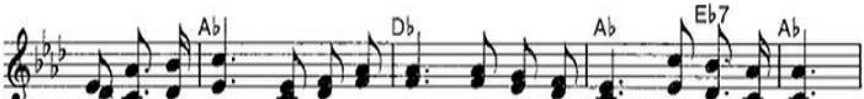
(눅 17 : 21)

WHERE JESUS IS 'TIS HEAVEN: 8.8.8.8.REF.
J. M. Black, 1898



1. 내 영 혼 이 은 총 입 어 중 한 죄 짐 벗 고 보 니
2. 주 의 얼 굴 뵙 기 전 에 멀 리 뵈 던 하 늘 나 라
3. 높 은 산 이 거 친 들 이 초 막 이 나 궁 궐 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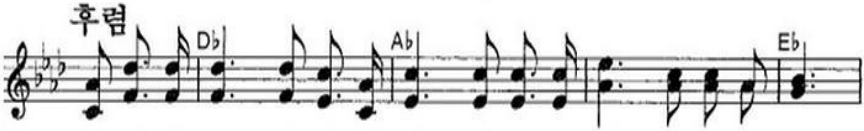
1.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This world has been a Heav'n to me;
2. Once Heav- en seemed a far- off place, Till Je- sus showed His smil- ing face;
3. What mat- ters where on earth we dwell? On moun- tain top or in the dell,



슬 픔 많 은 이 세 상 도 천 국 으 로 화 하 도 다
내 맘 속 에 이 뤄 지 니 날 로 날 로 가 깝 도 다
내 주 예 수 모 신 곳 이 그 어 디 나 하 늘 나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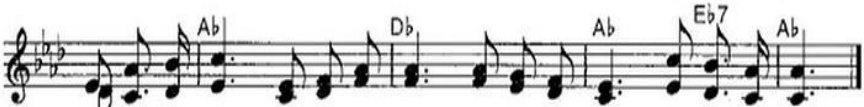
And 'mid earth's sor- rows and its woe, 'Tis Heav'n my Je- sus here to know.
Now it's be- gun with- in my soul, 'Twill last while end- less a- ges roll.
In cot- tage or a man- sion fair, Where Je- sus is 'tis Heav- en there.

후렴



할 렐 루 야 찬 양 하 세 내 모 든 죄 사 함 받 고

O hal- le- lu- jah, yes, 'tis Heav'n 'Tis Heav'n to know my sins for- giv'n;



주 예 수 와 동 행 하 니 그 어 디 나 하 늘 나 라

On land or sea, what mat- ters where? Where Je- sus is, 'tis Heav- en there.

주와 동행

[소그룹 설교 나눔 질문]

1. 우리 편의 날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암 5:18) 승리와 번영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증거로 읽던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는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날이 어둠으로 온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안도한 얼굴과 낙심한 얼굴 밑에 똑같이 흐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는 확신을 비추었습니다.

최근 내 삶에서 어떤 일의 결과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셨다" 혹은 "왜 우리를 외면하셨는가" 하고 읽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날을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었는지 돌아본다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2. 베델을 찾은 사람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암 5:4-5) 히브리어 본문에서 "나를 찾아라"와 "베델을 찾지 말아라"는 같은 동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을 하나님이 아닌 성소에 붙였다고 설교는 짚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나 익숙한 신앙의 방식, 원하는 복을 찾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까? 지금 내 신앙의 "베델"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떠오르십니까?

3. 등불과 기름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마 25:12) 열 처녀 모두 같은 등불을 들고 있었지만, 신랑은 기름의 양이 아니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설교는 기름을 우리가 쌓아 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신 그 앎 안에서 흘러들어오는 생명으로 고백했습니다.

예배와 직분, "주님, 주님" 부르는 입술처럼 눈에 보이는 나의 등불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가장 생생하게 느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기억은 지금 나의 신앙에 어떤 빛으로 남아 있습니까?

4. 나눌 수 없는 기름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마 25:9)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은 매정한 거절이 아니라, 누구도 대신 채워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정직한 대답이었다고 설교는 짚었습니다. 부모의 신앙도, 목사의 기도도, 오래 다닌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대신 불러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의식중에 기대어 왔던 "남의 기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 관계를, 언젠가 급할 때 구하면 된다고 미루어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본다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5. 모두 잠들었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마 25:5-6)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들었고, 신랑은 그 잠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먼저 떠난 이들을 "잠든 사람"이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이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살전 4:14). 우리를 깨우시는 분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설교는 고백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며 나의 신앙이 지치고 사그라들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혹은 먼저 보낸 누군가를 떠올릴 때, 오늘 들은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이라는 말씀은 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6.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살전 4:18) 설교는 닫힌 문을 마음에 둔 채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세 가지로 고백했습니다. 그 날을 알지 못한다는 고백, 부르시는 소리 앞에서 제 등불을 내어 드리는 일, 그리고 주님이 오시리라는 약속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일입니다.

이번 주간, 부르시는 소리 앞에서 내가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할 나의 등불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말"을 건네야 할 사람은 지금 누구의 얼굴로 떠오르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루 한 번 머물러 보기

하루 중 한 번, 저녁에 불을 켜는 순간에 잠시 손을 멈추어 보십시오. 그 불빛 앞에서 "주님, 저는 그 날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조용히 고백한 뒤, 먼저 잠든 이를 그리워하는 사람이나 위로가 필요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지는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밤중에도 부르고 계시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그 부르시는 소리를 따라 자신의 등불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말씀구절 Bible Verse

이번주 본문 중에서 – 아모스(Amos) 5:24

24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24 But let justice roll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n ever-flowing stream.

데살로니가전서(Thessalonians) 4:17-18

17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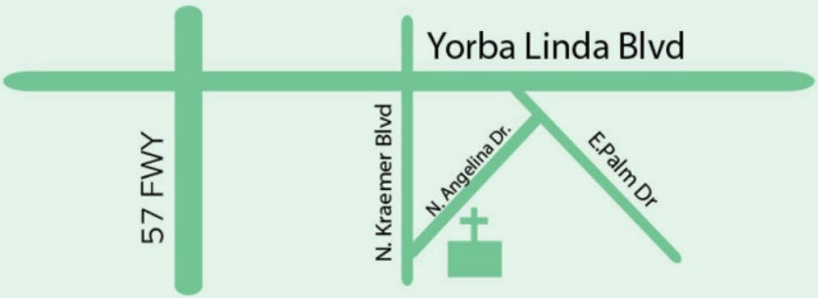
17 Then we who are alive, who are left,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will always be with the Lord. 18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with these words.

마태복음(Matthew) 25:12-13

12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13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2 But he answered, 'Truly, I say to you, I do not know you.' 13 Watch therefore, for you know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찾 아 오 시 는 길



교회소식

1. 주일 예배는 오후 1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오전 8시에 Zoom(897 3213 9944, Passcode 9191)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2. 주일 예배 후 교제실에서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3. 후원선교사: 권홍량(차드), 김성환(태국), 김용진(말라위)

4. 기도 제목: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으니,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의 등불을 밝혀 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5. 지난주 멕시코 어린이 성경책을 위해 420 불을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은 Pillar Mission Group 을 통해 아이들에게 성경책 선물로 전달됩니다.

6. 섬김

	11 월 8 일	11 월 15 일	11 월 22 일	11 월 29 일
기도	정해철 집사	윤치선 집사	황성만 목사	정해철 목사
성경봉독	김형귀 집사	유은복 권사	윤치선 집사	정용순 집사
식사	박효혜	김형귀	교회	정용순

예배 및 모임안내

예 배 구 분		장 소	시 간
주일예배	**1부 온라인**	**Zoom**	**주일 오전 8시**
	장년부	**본 당**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교육관	준비중
	Youth	**교육관**	**주일 오후 1시**
	대학,청년부	**교육관**	**주일 오후 1시**
모 임	**말씀의 여정**	**친교실**	**1, 3째주 주일 오후 3시**
	목요 북클럽	**사무실**	**매주 목요일 오전 9:30**
	찬양모임	**친교실**	**4째주 주일 오후 3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7)